

# 광주 모일환 육상 2관왕...전남 공도 11년만에 우승



모일환(조선대 2년)이 전국체전에서 육상 2관왕에 올랐다. 모일환은 7일 서울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전 전남대부 200m에서 21초26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모일환은 이날까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모일환은 400m에서 46초70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그는 400m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웠으며, '전국체전 3연패 달성'이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광주 구기종목 선전 돋보여 조선대·전자공고 배구 4강행 전남 사격·우수 등 잇따라 금화순여고 배드민턴 8강 진출했다.

구기종목 선전은 광주 선수단에 희망이 되고 있다. 침체돼 있던 광주배구가 체전에서 도약을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선대는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충남대와의 경기에서 3-2로 승리, 동메달을 확보했다.

광주전자공고는 8강전에서 진주동명고를 3-0으로 일축하고 4강에 진출, 최소 동메달을 확보했다. 호남대 배구팀은 지난 6일 열린 8강전에서 서울여자대학을 세트스코어 3-1로 꺾고 4강에 진출, 동메달을 확보했다. 호남대 배구팀은 첫 세트를 내줬지만 2세트부터 내리 3세트를 따내는 뒷심을 발휘했다. 호남대는 배구단 창단 1년 6개월만에 전국대회 첫 입상을 전국체전 메달을 예약했다.

스쿼시에서도 남보가 이어졌다. 광주체육회는 여자 일반부에서 인천선발을 2-



전남 공도선수단이 7일 인천 청룡정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전 시상식에서 종합 1위에 오른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1로, 남자 일반부는 경남체육회를 2-0으로 누르고 각각 은메달을 확보했다. 펜싱 종목에서는 3개의 동메달이 나왔다. 풍암고(플러레), 광주체고(에페), 호남대(사브르)팀이 메달의 주인공이다. 전남공도가 전국체전에서 11년만에 단체전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전남 선발 선수들로 구성된 공도는 지난 7일 인천 청룡정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 단체전 1위, 개인전 2위를 차지함으로써 종합순위 1위에 올랐다.

전남 공도의 종합 우승은 지난 2008년 제89회 전국체전(전남 개최) 이후 11년 만이다. 고민구(고흥흥무정)는 개인전 2위에 올라 종합 1위에 힘을 보탤다. 우수주역은 김경하(신안 용항정), 김승현(신안 용항정), 김도성(나주 인덕정), 안용환(강진 관덕정), 이기호(진도 창덕정) 하선범(진도 창덕정) 등이다. 개인종목에 출전한 김준홍은 사격 남자 일반부 속사권총에서 27점을 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수 남고부 박재희(순천 북

성고)는 태극권전능에서 우승했다. 전남은 우수 전종별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배드민턴 여고부 화순여고가 8강에 진출하는 등 약진하고 있다. 목포대 배구는 경남과학기술대를 3-0으로 쏘아웃시키고 동메달을 확보했다. 전남은 이날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를 수확했다. 이날 현재까지 금메달 23개, 은메달 30개, 동메달 38개 등 두 91개 메달을 따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트리플 보기 딛고 케빈 나 PGA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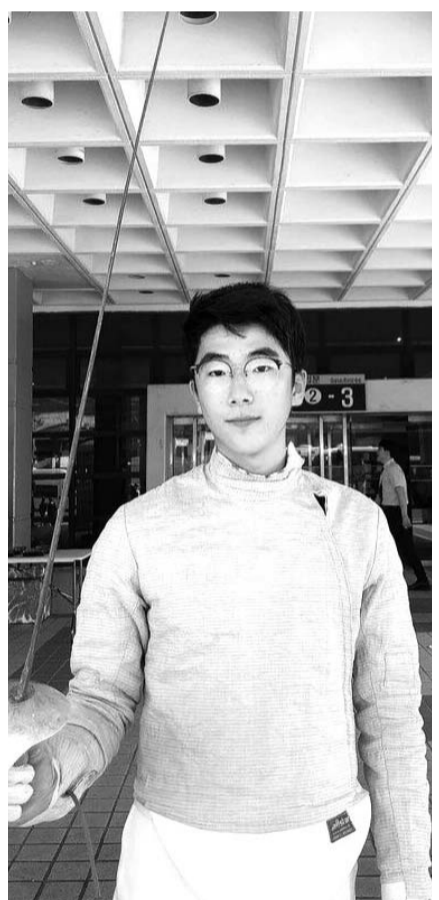
미국교포 케빈 나(한국어명 나상욱·사진)가 연장전 끝에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통산 4승 고지를 밟았다. 케빈 나(7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서벌린 TPC(파 71)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 최종일 연장 두 번째 홀에서 파를 지켜, 보기를 적어낸 패트릭 캔틀레이(미국)를 따돌렸다. 지난 5월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을 제패한 지 5개월 만에 정상에 다시 선 케빈 나(통산 우승을 4회로 늘렸다. 케빈 나(우승 직후 미국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어로 "허위 사실에도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왔다. 한국 대회에서 밟겠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케빈 나(한국어) 소감은 최근 한국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려다가 결혼 전 파혼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극적인 우승이었다. 한때 3타자 선수를 질주하던 그는 10번홀(파5)에서 트리플 보기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티샷이 숲에 들어가 두번만에 그린에 볼을 올리는데 실패한 케빈 나(세번째샷이 그린을 넘어가는 바람에 네번만에야 그린에 올라왔고, 보기 퍼트가 홀을 훌쩍 지나는 바람에 한개번에 3타를 잃었다. 그러나 케빈 나(우승)는 금세 버디 3개로 만회했다. 나란히 4라운드 함께 23언더파 261타로 연장전에 나선 케빈 나와 캔틀레이는 18번홀(파4)에서 벌어진 첫번째 연장전에서는 버디로 비겼다. 같은 홀에서 열린 두번째 연장에서 캔틀레이는 3퍼트 보기로 자멸했고 케빈 나(우승)는 가파르게 파를 지켜 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

## 전남공고 최선우, 펜싱 사브르 생애 첫 금

###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싶어"

"금메달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아요. 열떨떨하면서 기쁘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펜싱 남고부 사브르 개인전에서 광주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최선우(전남공고 3년·사진). 최선우는 최근 서울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펜싱 남고부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충북체고 조성우(2년)를 15-1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선우는 개인 4강전에서는 유소년 국가대표 출신인 서울 흥대부고 이호빈(3년)을 15-9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최선우는 지난 2014년 7월 풍암중 때 처음 칼을 잡았다. 고등학교 1학년때까지는 평범한 선수였다. 변화의 전기는 지난해 1월 유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점 차 패배로 탈락한 이후 찾아왔다. 이후 이를 악물고 연습에 매진했고, 단점인 집중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마인드 컨트롤 훈련에도 힘을 쏟았다. 생애 첫 메달은 고 2학년 때인 지난해 4월 화성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은메달이다. 그 해 9월 흥천 김창환배 개인전 64강에서 실업팀 선수를 상대로 15-14 점 차 승리를 거두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가 흘린 땀은 지난 3월 해남 화장기 대회 개인전 금메달로 이어졌고, 메이저 대회인 전국체전에서도 결실을 맺었다. 성적의 바탕은 모두 훈련 덕분이다. 그는 올해 동계훈련에서 자신의 장점인 길게 때리는 공격 기술을 더욱 연마하면서 집중력 부족으로 리드하다가 역전당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멘탈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최선우는 "공격 습관을 바꾸기 위해 후배들과 함께 죽기살기로 연습한 게 도움이 됐다"며 "내년에 한국체대로 진학할 예정인데,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야속한 비...야구 동강대·세한대 추첨패 4강행 좌절 고마운 비...소프트볼 명진고·전남체육회 4강 진출

"고마운 비, 야속한 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전역에 비가 내리면서 일부 경기가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등 곡절을 겪었다. 7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예정이던 대학부 야구, 소프트볼이 취소·순연되는 바람에 광주·전남 선수단은 함께 울었다. 동강대(광주)와 흥익대(세종)의 8강전은 추첨으로 승부가 결정돼 동강대의 4강행은 좌절됐다. 세한대(전남) 야구도 한일장신대(전북)에게 추첨으로 패해 4강에 오르지 못했다. 소프트볼에선 광주·전남 모두 웃었다. 명진고(광주)는 진주외국어로(경남)와의 고등부 8강전에서 추첨으로 4강에 진출, 동메달을 확보했다. 대회 6연패를 노리는 명진고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남체육회(전남)도 일반부에서 상지대(강원

에게 추첨승을 거두고 4강에 올랐다. 전남체육회는 뜻밖에 강력한 우승후보인 상지대를 가뭇게 따돌린 셈이 됐다. 소프트볼은 전국체전 순위를 결정하는 배정이 많은 종목이다. 동메달만도 559점이다. 대학부 야구와 여자부 소프트볼이 추첨으로 4강행을 결정할 이유는 대회 일정상 경기를 연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경기는 경기를 하루씩 순연할 경우 대회기간 안에 모든 경기를 치를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회부부는 '날씨나 경기장 사정으로 경기를 할 수 없을 경우 추첨으로 승부를 결정하며, 결승전에 한해 공동우승으로 한다'는 대회 규정에 따라 추첨을 진행했다. 반면 대회 일정이 여유가 있는 고등부 야구와 정구, 테니스, 자전지 경기는 하루씩 순연됐다. 7일로 예정됐던 동성고와 새광고(충북) 고등부 야구 8강전은 8일 치러진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산행안내

- 10월 9일(수)
  - ▲광주청록산악회 10월9일(수) 전북 안주 운암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 10월 10일(목)
    - ▲광주호산회 10월10일(목) 중국 서안/돈황/가옥굴/칠채산 4박5일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 10월 13일(일)
      - ▲광주자연보존단사회 10월13일(일) 경기도 양평 용문산(1157m), 04:20 영주체육관, 04:40 무등경기장, 05:00 동광주

- 10월 9일(수)
  - ▲광주자연보존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 ▲광주kj산악회 10월13일(일) 경남거창, 현성산, 금원산, 금굴산행, 영주체육관 7:30, 백운우체국7:35, 돌고개7:40, 광주역7:55, 문에후문8:00, 비엔주차장8:05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 ▲광주산친구산악회 10월 13일(일) 서울 관악산 산행, 영주동 체육관 정문 05:30, 에스엘요양병원 05:35, 월산동, 오민석신경외과 05:38, (구)남구의회 맞은편 05:40, 농성동 S-OIL 주유 05:45, 신세계백화점 육교옆 05:50, 문에회관 후문 05:55, 비엔날레주차장·도로변 06:00 ※다음카페 광주산친구산악회 ☎ 010 6462 5014
  - ▲광주산사모산우회 10월13일(일) 영암 월출산, 영주 모아레포츠 입구 06:40, 상무 무각사 06:50, 광주시의회 06:55, 운

- 남 21세기병원 07:05, 수완 지하도 위 승강장 07:10, 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07:20, 비엔날레주차장앞 07:30 ※다음카페 광주산사모산우회 ☎ 010 3603 8370, 010 3606 8081
- ▲광주자연보존단사회 10월13일(일) 경기동 양평 용문산(1157m), 04:20 영주체육관, 04:40 무등경기장, 05:00 동광주 흥플러스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존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 10월 16일(수)
  - ▲광주청록산악회 10월16일(수) 경북 경주 해파랑길11코스 트레킹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6:30, 교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후문 06:50, 각화동 현대물류 앞 07: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 10월 19일(토)
    - ▲광주호산회 10월 19일(토) 신불산 공룡선산 간월재 역사축제, 06:30 풍암동

-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7:00 롯데백화점 07:15 문에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 ▲광주금당산악회 10월 19일(토) 여수 백도 아름다운 비경과 거문도 섬 트레킹.

- 본선동 롯데슈퍼앞 5시10분,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5시20분, 영주체육관 5시30분, 한국병원앞 5시40분, 문에회관 후문 5시50분,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6시 ※다음카페 :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자본감소공고  
 2019년 10월 1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350,000,000원 중 금 300,000,000원을 감소하고 자본의 총액을 금 50,000,000 원으로 하고 발행주식의 총수 5,000 주로 한다.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30,000주에 대하여 주주 이광민 50.20%, 주주 오노열 22.89%, 주주 김민호 15%, 주주 채금진 12%로 유상 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 35,000주를 5,000 주로 감소 할 것을 결의하였음. 위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19년 10월 8일  
 주식회사 임마사랑  
 회순군 도곡면 도곡농공단지 29-2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광민

LOTTE CINEMA | 총장로관

1관 조커  
 2관 퍼펙트맨  
 3관 조커  
 4관 가장 보통의 연애  
 5관 가장 보통의 연애  
 6관 조커  
 9관 가장 보통의 연애  
 7관 씨네키움  
 소피와 드래곤: 마법책의 비밀 양자물리학  
 8관 씨네키움  
 퍼펙트맨,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나쁜 녀석들: 더 무비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즐거움 문화상책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문화가 있는 날 - 공연상책  
 광주국악상설공연  
 기획전시  
 온도로(溫度)  
 광주시제 347회 정기공연  
 김홍재의 브람스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아프리카 열정과 리듬을 ANYAFO

매주 화~토 5:00pm  
 광주공연마루  
 10.4-11.3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10.24(목) 7:30pm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10.30(수) 7:30pm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온도로(溫度)  
 김홍재의 브람스  
 아프리카 열정과 리듬을 ANYAFO

문화가 있는 날 - 공연상책  
 광주국악상설공연  
 기획전시  
 온도로(溫度)  
 광주시제 347회 정기공연  
 김홍재의 브람스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아프리카 열정과 리듬을 ANYAFO

매주 화~토 5:00pm  
 광주공연마루  
 10.4-11.3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10.24(목) 7:30pm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10.30(수) 7:30pm  
 광주문예회관 소극장